



담당자 연락처:

Shauna Schuda

국제협회 홍보과장

630-468-7075

Shauna.Schuda@LionsClubs.org

즉시 배포용

브라질 아드리엔니 미헬리 다시우바 양,

2025-2026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 대상 수상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 팔마레스 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한 '2025-2026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에서 아드리엔니 미헬리 다시우바(13, 브라질 팔마레스)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11~13 세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국제 대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우리 함께 하나되어'로, 전 세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연대와 공감, 인간적 연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드리엔니의 글은 평화가 연민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시력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형이 아닌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산타 루이자 중학교 7 학년에 재학 중인 아드리엔니는 "서로를 걸모습을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각자의 내면에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A.P. 싱 국제회장은 "이번 수상작은 공감과 이해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며 아드리엔니의 대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와 더불어, "라이온스는 평화 수필 경연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에게 공감과 존중,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드리엔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또래 시각장애 청소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독서와 여행, 교회 합창 활동을 즐기는 아드리엔니는 장래에 소아과 의사 또는 수의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대회는 시각장애를 가진 11~13 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쓰기 활동을 통해 평화 관련 주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 아드리엔니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주어진다.

- 상금 미화 5,000 달러
- 상패
- 가족 2 인 동반 시상식 참가 기회

##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 개요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시각장애를 가진 11~13 세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글쓰기를 통해 평화, 포용, 지구촌 이웃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 세계 라이온스클럽이 지역 단위에서 대회를 주관하고 지구·복합지구·국제 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소개

라이온스 인터내셔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국제라이온스재단을 아우르는 글로벌 단체다. 전 세계 5 만 개 클럽, 약 140 만 명의 회원이 봉사 활동과 국제재단의 교부금을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라이온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lionsclubs.org/ko](https://lionsclubs.org/ko) 에서 만날 수 있다.

## 2025-2026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대상 수상작

- 아드리엔 미렐리 다 시우바

### “우리 함께 하나되어: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빛과 색으로 배웁니다. 경계를 보고, 피부색의 차이를 보고,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선을 봅니다. 저 역시 빛을 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칼날처럼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색을 입혀 범주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 빛은 모서리를 지우며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약한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또렷이 보이는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쉽게 판단하려는 눈을 질끈 감을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되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갈등과 전쟁, 배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쉽게 믿고, 잘못 단정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크고, 높고, 반짝이는 것들을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겉모습이 그 기준이 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는 지워지고 밀려나, 금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람의 존재만큼은 조금 더 내밀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발걸음의 울림, 질문을 건네기 전 달라지는 숨결, 함께 있을 때 흐르는 침묵의 결. 저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만납니다. 피부색은 제 눈에 또렷하지 않을지 몰라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나 말을 고르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영혼의 색만큼은 그 무엇보다 또렷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진짜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공감하려는 가슴과 판단하려는 머리 사이의 거리라는 것일요.

이 우주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손과 저 산,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심장까지도 결국 같은 원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같은 원자 덩어리이지만 각자 다른 껍데기를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껍데기, 즉,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매달릴 때, 우리 안의 하나됨은 산산이 흩어집니다.

'우리 함께 하나되어' 나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우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와 당신의 다름이 내 시선의 한계를 채워 줌을 알고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 당신의 기쁨은 어느 순간 나의 기쁨임을 아는 것. 당신의 고통이 곧 내가 딛고 선 단단한 땅의 균열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모두 눈을 감아봅시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 힘의 크기, 출신과 배경은 이내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선명하게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과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빛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실이 서로를 잇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는 멀리 가야만 닿을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될 때, 그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류가 마침내 걸모습 너머의 진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각들의 합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평화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 심장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기 위해 빛을 찾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서로에게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눈을 쓰지 않고도 보게 된 진실입니다.